

10) 안태봉(安胎峯)

서면 학구리 신촌마을 뒤에 있다. 계족산에서 산줄기가 서쪽으로 뻗어 송치(松峙)에서 우뚝 솟은 산록의 서남쪽 기슭에 큰 봉분같이 생긴 봉우리가 안태봉이다. 안태봉 뒷산을 노적봉이라 부른다. 안태봉 정상에 비가 있다. 비석이라기보다 표석(標石)이라 해야 할 작은 비이다. 전면에

왕자수견태실(王子壽堅胎室) 성화 19년 10월 15일 입(成化十九年十月十五日立)

라 음각되었다.

수견이 어느 왕의 왕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 전주 이씨 익양군(益陽君)의 후손이 별량면 장산리에 세거하고 있는데, 익양군 파보를 보면 조선 성종의 다음이 익양군이다. 연산군의 아우인데 익양군의 아들의 항렬자가 수(壽)자인 것으로 보아 연산군의 아들 태를 여기에 묻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성화 19년은 1483년(성종 14)이므로 연산군 아들의 태를 복지인 이곳에 안장했을 것 같다. 돌로 태실을 만들어 묻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는데, 태실 안에 불안한 태향아리는 도굴당해 없다고 한다. 왕자 수견의 태를 불안했기 때문에 산봉우리를 안태봉이라 부른다. 비신이 두 동강 나 뒹굴고 있는데, 한국전쟁 때 공비토벌을 하면서 총에 맞아 두 동강 났다고 한다.